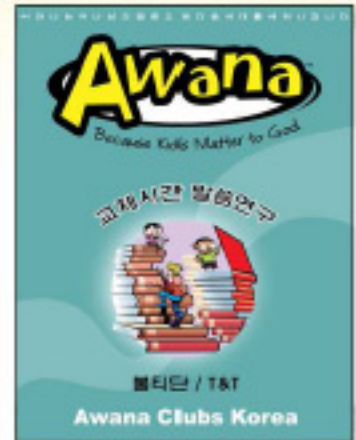


여러분은 누구의 본을 받고 있습니까?



- 목적 :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 주신 삶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 목표 : 이과의 결과
 1. 자기가 어떤 표본을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며
 2.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도록 하셨는지 알게 되고
 3. 갈라디아서 5:22-23에 나온 성령의 열매의 본을 최소한 3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 종이, 연필, 크레용, 싸인펜 모델이 될 만한 사진이나 물건, 칠판, 분필, 성경구절 기록란 카드, 배역 말을 10명의 아이들.

■ 말씀준비(4 ~ 5분)

어린이들에게 종이와 연필을 나누어 줍니다. 교사가 준비해 온 사진이나 물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뒤 어린이들에게 그려보게 합니다. (실제로 물건은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 그렸으면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좀 보여 주세요.

몇 명을 학생들에게 그린 그림을 들어 보게 합니다. 그림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로 그려진 것을 지적해 줍니다.

왜 그림들이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모두 똑같은 것을 그리지 않았나요?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봅시다. 실제의 물건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보고 그린다면 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겠지요?

이제는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겠지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그리는 것 대신에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것을 보고 그린다면 실제의 물건과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겠지요?

■ 말씀연구(5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림을 상상해서 마음대로 그렸듯이 우리들의 생활도 자기 상상대로 생각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도 또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삶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의 친구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미리 10명의 학생들에게 카드 하나씩을 나누어 줍니다. 앞면에는 얼굴과 이름이 있고 뒷면에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카드를 가진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합니다.

1) 성질 고약한 만수
난 고약한 만수야.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때는 미워 죽겠어. 너희도 조심해! 나를 방해 하면 소리를 꼭 지를거야. 주먹이 날아 갈지도 몰라. 내가 약이 바짝 올라 있을 때에는 조심하라구

2) 거짓말 잘하는 철수
난 거짓말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내가 거짓말을 어쩌나 그럴싸하게 잘하는 지 너희들은 아무도 모를거야. 들키지 않고 얼마나 잘하나 보라구. 우리 부모님도 속고 말거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주 착한 아들인 줄 알고 계신다니까! 후후 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3) 때쓰는 수미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거야. 내 말 들었냐? 내 말대로 하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거야!! 난 바닥에 누워 소리소리 지를거야! 난 가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문을 걷어차기도 한다구.

4) 소문내기 잘하는 영희

우리 오빠, 언니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막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더욱 재미있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데, 아이들이 하는 일을 모두 다 선생님에게 고해 바치니까. 난 커서 꼭 스파이가 될 거야.

5) 속이기 잘하는 관수

난 학교 성적을 무조건 다 "수" 맞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조작하는 가를 보아야 하는 건데. 얼마나 그럴싸한지 선생님들도 감쪽같이 속는다고. 성적을 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고 돈을 받기도 하지. 그래서 나는 언제나 속임수가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6) 훔치기 잘하는 승구

너희들 갖고 싶은 것 있어? 내가 무엇이든 줄 수가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말만하라고. 어제는 엄마 생일에 드리려고 팔찌 하나를 훔쳤지. 돈 필요한 사람 있어? 말만하라고.

7) 무사태평한 승희

난 아무것도 걱정되는 것이 없어. 내 방 좀 깨끗이 치우고 옷을 단정하게 걸라고 엄마가 매일 소리 지르시지만 무슨 상관이야? 지난 번에 수학책이 없어졌는데, 내일 찾아보지 뭐.

8) 비판 잘하는 민수

사람들은 왜 다 바보같지? 아니 너 그 웃은 할머니가 입혀 주신 것이니? 으훅, 이 음식 좀 봐 무슨 맛이 이래! 학교 선생님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지. 용돈이 500원이라 그것으로 뭘 하라고.

9) 참을성 없는 영자

빨리 좀 외봐! 이러다간 늦겠어. 으~ 다 집어칠까 보다. 빨리 좀 할 수 없어? 너희들 정신 좀 차릴 수 없니?

10) 말 안 듣는 이철

엄마가 잠자러 가라고 하지. 엄마는 내가 자지 않고 매일 여기 앉아서 라디오 듣고 있는 것은 모르신단 말야! 알아도 상관없지 뭐. 나 보고 방 청소하라고 하면 난 언제나 텔레비전만 보니까. 나를 부르다 부르다 지쳐 결국 엄마가 다 하는데 뭐. 과연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활은 다음의 성경 구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갈라디아서 5:22-23a 절을 읽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 5:22-23a)

■ 말씀 해석(2~3분)

예수님을 본으로 따른다면 열거된 열매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여러분은 올바른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친구들처럼 행동하고, 친구들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고등학교쯤 가면 한결같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행동, 웃음시, 말투들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꼭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는 나쁜 본이 되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하십니다. 그래서 참다운 본으로 수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선함, 성실함, 온유함, 절제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 말씀 적용(2~3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